

碩 士 學 位 論 文

일 본 어 접 속 조 사 「 と 」 연 구

指 導 教 授 金 勝 漢



濟 州 大 學 校 教 育 大 學 院

日 語 教 育 專 攻

玄 侖 靜

2006年 2月

碩 士 學 位 論 文

일 本 어 접 속 조 사 「 と 」 연 구

指 導 教 授 金 勝 漢



濟 州 大 學 校 教 育 大 學 院

日 語 教 育 專 攻

玄 侖 靜

2006年 2月

일본어 접속조사 「と」 연구

指導教授 金勝漢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2005年 10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提出者 玄 侖 靜

玄侖靜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5年 12月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국문초록>

일본어 접속조사 「と」 연구

玄 侖 靜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勝漢

일본어의 접속표현 중 대표적인 유의표현(類義表現)은 ‘조건’을 나타내는 「と、たら、なら、ば」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접속조사 「と」는 다른 표현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접속조사 「と」는 ‘조건’을 나타내는 조사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と」에 의해 전건(前件)과 후건(後件)이 연결된 문에 있어 조건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용법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접속조사 「と」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と」의 문을 조건관계를 가지는 「と」와 시간관계를 가지는 「と」로 나누어 각각의 용법에 대한 의미상, 구문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고찰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건관계 「と」는 전건과 후건이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조건, 습관·반복표현, 가정표현, 계기(契機)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 일반조건은 어떠한 일반적인 사실을 서술하는 경우로, 문말에는 기본형이 온다.

※ 본 논문은 2006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임.

②습관·반복표현은 개인의 습관이나 반복된 행위를 나타내는 용법이다. 문말의 형태가 과거형인 경우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습관·반복을 나타내며, 현재형인 경우에는 현재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태임을 나타낸다.

③가정표현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태에 대한 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용법은 ‘조건’을 나타내는 다른 용법「たら、なら、ば」에 비해 가정성이나 조건성의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④계기표현은 전건이 이유가 되어 그 결과로서 후건의 행위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용법이다.

2)시간관계「と」는 시간의 전후관계나 시간적 상황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동시용법, 연속용법, 발견용법, 발현(発現)용법으로 나누어 보았다.

①동시용법은 전건과 후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②연속용법은 전건과 후건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속으로 일어나는 용법을 말한다.

③발견용법은 전건에 나타난 행동이나 사태에 의해 후건의 상태가 인지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④발현용법은 전건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후건의 사태나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본 시간관계「と」의 용법가운데 연속용법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표현「と、たら、なら、ば」중 「と」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용법이다.

목 차

국문초록	i
I. 서 론	1
II. 선행연구	4
III. 조건관계 「と」	10
3.1 일반조건	10
3.2 습관·반복표현	11
3.3 가정표현	14
3.4 계기(契機)표현	17
IV. 시간관계 「と」	22
4.1 동시(同時)	23
4.2 연속(連続)	24
4.3 발견(発見)	26
4.4 발현(発現)	30
V. 결 론	35
參 考 文 獻	38
Abstract	41

I. 서 론

일본어를 연구하는데 있어 접속조사에 관한 연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어에 있어 접속표현이 다른 언어에 비해 유의표현(類義表現)이 많이 존재하고, 그만큼 복잡한 표현양식을 띠고 있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속표현 중 대표적인 유의표현은 ‘조건’을 나타내는 「と、たら、なら、ば」이다. 이 네 가지 형식 사이에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각각의 특징들에 의해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들이 일본어를 학습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한 부분이 된다.

이러한 「と、たら、なら、ば」 가운데에서도 특히 접속조사 「と」는 다른 표현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 柊二が手を伸ばして頬を触れると、さつきは顔をゆがめた。
(ビューティフルライフ, p.219)
- (2) 健三は玄関まで送り出すと、すぐ書斎に入った。(道草, p.39)
- (3) やることもないので居間でぼんやりしていると、電話がかかってきた。
(君といた夏, p.73)

위의 예는 모두 전건(前件)과 후건(後件)이 접속조사 「と」로 연결된 문장이다. 그러나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은 전건이 이유가 되어 후건의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2)는 전건과 후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3)은 전건의 행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건의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1)은 전건과 후건의 내용이 조건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전건과 후건이 「と」에 의해 조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2, 3)은 전건과 후건이 조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시간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접속조사 「と」는 ‘조건’을 나타내는 조사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と」에 의해 전건과 후건이 연결된 문에 있어 조건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용법으로도 사용된다.

지금까지 「と、たら、なら、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각각의 표현을 비교하여 각 용법간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논문에서는 각 표현형식에 대한 비교, 분석이 아닌 일본어의 「と、たら、なら、ば」 가운데 다른 표현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접속조사 「と」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우선 「と」의 문을 조건관계를 가지는 「と」와 시간관계를 가지는 「と」로 나누고 그 다음으로 각각의 용법에 대한 의미상, 구문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본어의 접속조사 「と」에 대한 고찰을 하는데 필요한 예문은 일본문부성검정 교과서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1~6학년 총12권), 중학교 국어 교과서(1~3학년 총3권),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1~3학년 총3권)를 이용하였으며 그 외에 소설, 신문 등의 예문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적절한 예문을 찾지 못한 경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문은 문형사전의 예문과 학자들이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였다.



II. 선행연구

접속조사 「と」에 대한 연구는 다른 표현들과의 비교에서 시작되었다. 1930년 松下大三郎은 「と」를 실제적, 「ば」를 논리적이라고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²⁾

常然假定を表す場合に「と」と「ば」とどう違ふか、一言にして言へば「ば」は理論的で「と」は實際的である。

例へば

甲 雨ふりに外へ出れば濡れてしまふ。

乙 こんな日に外へ出ると濡れてしまふ。

の(甲)は單純な理論である。出るか出ないかに関して全く言はない。車に出れば濡れるといふのである。濡れるだけの理由が有るからである。その理論は過去の経験に由って帰納された知識であるにしても、車に帰納の結果を言ふのであって、帰納の経路や経験の由来から獨立してゐる。(乙)は理論ではない。實際である。濡れるだけの理由が有るか無いかは別問題であつて、理由はとにかく實際濡れるのである。経験の結果を表しても経験から獨立して居ない。経験を背景として動いてゐる。

상연가정을 나타내는 경우에 「と」와 「ば」는 어떻게 다른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ば」는 이론적이고 「と」는 실제적이다.

예를 들어

갑 비가 올 때 밖에 나가면 젖는다.

을 이런 날에 밖에 나가면 젖는다.

에서 (갑)은 단순한 이론이다. 나가는가 나가지 않는가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단순히 나가면 젖는다는 것이다. 젖는다고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론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귀납되어진 지식이지만 단순히 귀납의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귀납의 경로나 경험의 유래에서는 독립해 있다. (을)은 이론이 아니다. 실제이다. 젖는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유가 무엇이든 실제 젖는 것이다. 경험의 결과

2) 松下大三郎(1930), 『標準日本口語法』, 勉誠社 p.290

를 나타내지만 경험에서 독립해 있지는 않다. 경험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두 가지 형식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지적도 하였다.³⁾

「ば」と「と」とはもう一つの相違がある。それは「ば」はもと「は」であって彼れと此れを分けて言ふ意が有る。「は」は分説の助辞であるが、「ば」も分説的である。「飲めば酔ふ」は飲んだ場合と他の場合とを區別して分けて言ふ意が有る。「と」は分説の意味がない。之を單説といふ。「ば」と「と」には分説と單説の別が有る。

「ば」와 「と」는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ば」는 원래 「は」로,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 말하는 의미가 있다. 「は」는 분설의 조사이고 「ば」도 분설적이다. 「마시면 취한다」는 마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서 나누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と」는 분설의 의미가 없다. 이것을 단설이라고 한다. 「ば」와 「と」에는 분설과 단설의 차이가 있다.

「ば」의 경우, 분설(分説)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건이 일어나면 후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와 동시에 전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후건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것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飲めば酔う」라는 문장이 있을 때, ‘마시면 취한다’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 이외에 ‘마시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그 문장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と」 단설(單説)적이기 때문에 전건이 일어나는 경우 후건이 일어난다는 그 자체만을 의미하고 있고, 「ば」의 경우처럼 전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는 그 문장 안에 내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と」의 경우 분설의 의미가 없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근접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적당하고, 「ば」의 경우에

3) 松下大三郎(1930), p.292

는 분설의 의미가 있어 주관적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松下의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 후 佐久間鼎에 의해 이러한 と의 실제적인 측면이 더 자세히 논해지게 되었다.

佐久間은 「と」가 전건, 후건 사이에 어떠한 특정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동시성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と」의 의미가 전후의 절의 동작주체나 술어의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서술하고 있다.⁴⁾

이러한 佐久間과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는 학자가 三尾砂이다. 三尾는 대화체를 분석하여 접속하는 술어의 종류에 따라 「と」를 甲과 乙의 두 종류로 나누었다.⁵⁾

甲-동사의 기본형 및 「ます」에 「と」가 접속된 경우

乙-이형용사의 기본형 「だ、です、ません」등에 「と」가 접속된 경우

이 두 가지 중 甲의 경우는 그 의미가 전후의 구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며 乙은 가정조건으로서밖에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고 서술하고 있다

甲-仮定條件

4) 佐久間鼎 (1940), 『現代日本語法の研究』, 厚生社

5) 三尾砂(1958), 『話ことばの文法』, 法政大學出版局

一回的な一定の時にしばられた条件

一定の時を離れた条件

既定条件

一回の時にしばられた条件

乙-仮定条件

갑-가정조건

일회적인 일정시간에 제한을 받는 조건

일정시간에서 벗어난 조건

기정조건

일회적인 시간에 제한을 받는 조건

을-가정조건

현대어에 있어서의 접속조사 「と」의 의미, 용법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국립국어연구소에서 이루어졌다. 국립국어연구소에서는 사용 실태조사, 분석에 의한 각 형식의 용법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 국립국어연구소에서는 「と」의 용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⁶⁾

「と」의 用法

- ① 二つの動作・作用の時間的共存・先後の關係(同時に、または時間的に近接して行われる二つの動作、作用を結び付ける場合)
 - a) 同時(ある動作・作用が行われる。それと同時に、またはくびすを接して別の動作・作用が行われる場合)
 - b) 継起(一つの動作・作用が、次の動作・作用の前段階として先行する場合。この場合、二動作は同一の主体によって営まれている)
- ② 因果關係をもつ二つの動作・作用を結び付ける(前件について順説条件となる)
 - a) きっかけ(一つの動作・作用が次の動作・作用のきっかけとなっている場合)
 - b) 習慣・反復的事象・既定の事実などにおける条件を表す)
 - c) 順当な結果を伴う条件を仮定する(仮定の順説条件)
- ③ 次の発言の準備としての前置き
- ④ 起り得べき場合を仮定し、その条件に拘束されずに後件が起ることを示す。

6) 益岡隆志(1993), 『日本語の条件表現』, くろしお出版 p.243 인용

逆接条件

「と」의 용법

- ① 두 개의 동작·작용의 시간적 공존·전후관계(동시에 또는 시간적으로 근접해서 일어나는 두 개의 동작·작용을 연결시키는 경우)
 - a) 동시(어떤 동작·작용이 행해지고 그것과 동시에 또는 연이어서 다른 동작·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 b) 계기(하나의 동작·작용이 다음의 동작·작용의 전 단계로서 선행하는 경우. 이 경우 양쪽의 동작은 동일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 ② 인과관계를 가지는 두 개의 동작·작용을 연결시킨다.(전건에 대해서 순설조건이 된다)
 - a) 계기(하나의 동작·작용이 다음의 동작·작용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경우)
 - b) 습관·반복적 사태, 기정의 사실 등에 있어서의 조건을 나타낸다)
 - c) 당연한 결과를 동반하는 조건을 가정한다.(가정의 순설조건)
- ③ 다음 발언의 준비로서의 서론
- ④ 일어나야만 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그 조건에 상관없이 후건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낸다. 역접조건

이와 같이 국립국어연구소에서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조사의 각각의 형식에 대한 용법을 설명하였고, 1964년에는 「と、たら、なら、ば」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용법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일본어교육의 입장에서 접속조사 「と」의 각각의 형식의 특징을 분석한 학자로는 森田良行을 들 수 있다. 森田은 ‘말하는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조건이나 결과의 표현을 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と」에 의해 나타나는 조건결과의 각 표현은 현재의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⁷⁾

7) 森田良行(1967), 『条件の言い方』, 講座日本語教育 第三分冊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と」 조건문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 1) 「と」 조건문의 선행구에는 「だろうと、たと」와 같은 미래형, 과거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 2) 「と」 조건문의 후행구에는 「と~たい、と~ください」와 같은 미확정적인 사실이 나타나기 어렵다.

이러한 「と」에 대한 연구는 「と」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と」와 「ば」를 비교하는 가운데 논해지고 있는 것이 많았다. 그리고 대부분이 「ば」와 공통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と」 자체의 성질에 대해서는 松下의 ‘「と」는 실제적이다’라는 것만 논의됐을 뿐 그 이상의 것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豊田豊子の 「と」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았다. 豊田은 「前項の主語の動作、作用が後項の主語の動作、作用とどのような関係にあるか(전항주어의 동작, 작용이 후항주어의 동작, 작용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용법을 분류하였다. 일본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이 「と」를 오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접속조사 「と」의 용법과 구문상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Ⅲ. 조건관계 「と」

- (4)ドライアイスというのは空気に触れると、白い煙になって跡形もなくなる水だ。
(高2年, p.73)
- (5)音楽が好きで、私がピアノをひくと、いつもうずくまって聴いていた。
(つめたいよるに, p.13)
- (6)これは基礎だからね。これがわからないと中学に行って苦勞するぞ。
(つめたいよるに, p.34)
- (7)時夫があいさつすると、おばあさんはふかふかと頭をさげた。
(つめたいよるに, p.69)

(4~7) 모두 각각 나타내고 있는 내용은 다르지만 전건과 후건이 서로 조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조건관계를 가지는 각각의 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3.1 일반조건

- (8)二酸化炭素が増加すると、地球全体が二酸化炭素の毛布に包まれたような現象が起こす。
(高2年, p.41)
- (9)高山に行くと、空気にふくまれている酸素の量が少なくなる。(小5年下, p.32)
- (10)二十歳になると、選挙権がある。
(中2年, p.73)
- (11)クモの巢が朝かかっていると、天気が悪くなる。
(豊田豊子 1983: 6)
- (12)夜爪を切ると、親の死に目に会えない。
(豊田豊子 1983: 6)

(8)은 이산화탄소가 증가했을 때 (9)는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의 일반적인 사태 즉 자연의 법칙을 후건에서 서술하고 있고 (10)에서도 20살이 되면 선거권이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위에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반조건이란 일반적인 사람이나 사태 등에 대한 조건관계를 서술하는 표현 즉, 어떠한 특정개인이나 특정한 사태가 아닌 일반적인 것에 대한 조건관계를 나타내는 용법이다.

이러한 일반조건표현은 전건이 성립하는 경우 반드시 후건이 성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전건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에 영향을 받아 자연적으로 후건이 발생한다는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연현상이나 일반적인 현상을 서술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또 (11, 12)와 같이 속담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일반조건문의 구문상 특징은 (8~12)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언제나 문말에 기본형이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현상이나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므로 말하는 사람의 주관이나 나타내는 표현 즉, 희망, 의지, 명령 등을 나타내는 표현은 올 수 없다.

그러므로 일반조건은 전건의 조건이 성립하면 후건의 결과도 언제나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다.

3.2 습관·반복표현

(13)その辺までくると、いつも、となりの若い主人が愛犬に引かれて帰ってくるのに
出会う。 (小5年下, p.123)

(14)入江くんってまいっちゃう。私が人知れず泣いてると必ず登場する。

(君といた夏, p.72)

(15)それで毎年、秋になると、しけのために、海からおし流されてくどろや砂でうずめられ、口をとじてしまいます。(小5年下, p.79)

(16)学校から帰ると、時夫はまた毎日、おばあさんのところにあそびに行くようになった。(つめたいよるに, p.75)

(17)その日以来毎日、学校から帰ると、時夫は養老院に遊びに行った。(つめたいよるに, p.66)

(18)ぼくは学校から帰ると、毎日、まきと食べ物を祖母に用意してもらい、母と弟のいる病院に、バスに乗って出かけました。(中1年, p.83)

(13)은 전건의 행위 즉, 그 근처까지 오는 행위를 하면 언제나 옆집 젊은 주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14)는 내가 울고 있을 때 항상 나타난다는 것을 (15)는 매년 가을이 되면 일어나는 사태를 서술하고 있다. (16)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매일 아주머니가 계신 곳에 놀러가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이고 (17)은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양로원에 놀러갔다는 내용이고 (18)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매일 엄마와 동생이 있는 병원에 버스를 타고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13~15)는 어떠한 반복적인 행위나 반복적인 사태를 나타내는 문장이고, (16~18)은 한 개인의 습관에 대해 서술하는 문장이다.

그리고 (13~18) 문장 모두 전건의 사태가 일어나면 그것이 반드시 후건에서 언제나 같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습관·반복표현은 어떤 특정인물이나 현상의 습관이나 반복적인 사태를 나타내는 용법이라 할 수 있다.

습관·반복표현의 구문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습관·반복을 나타내는 문장 중에는 (13~15)와 같이 후건이 현재형으로 끝나는 문장과 (16~18)과 같이 과거형으로 끝나는 문장이 있다. 우선 (13~15)처럼 후건이 현재형으로 끝나는 문장의 경우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습관이나 행동 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16~18)처럼 과거형으로 끝나는 문장인 경우에는 현재에는 계속되지 않는 즉, 이미 끝난 것 혹은 그만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습관·반복을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습관이나 반복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부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13)에서는 「いつも」, (14)에서는 「必ず」, (15)에서는 「毎年」, (16~18)에서는 「毎日」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19) 僕はあのときのことを思うと、いつも胸がいっぱいになります。(中1年, p.68)

a. 僕はあのときのことを思うと、胸がいっぱいになります。

(19)는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벅차 오른다고 하는 습관·반복을 나타내는 용법이다. 여기에서도 습관이나 반복을 나타내는 부사 「いつも」가 사용되었다. (19)의 경우는 「いつも」라는 부사가 있음으로 해서 습관·반복표현임이 확실하지만 (19a)처럼 「いつも」가 없으면 습관·반복표현이 될 수도 있고 전건의 영향에 의해 후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유-결과표현도 될 수 있다. 이렇듯 습관·반복을 나타내는 용법에서의 부사의 역할은 그 문장이 어떤 용법이 되는가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반복을 나타내는 용법은 전건이 일어나면 반

드시 후건에서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위에서 살펴본 일반 조건과 같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문장이 일반적인 것을 서술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인물이나 사태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용법이 달라진다. 즉, 일반적인 사람이나 사태에 대한 것을 서술하고 있는 문장은 일반조건을 나타내며, 어떠한 특정인물이나 사태에 대해 서술하는 문장은 습관·반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3 가정표현

(20) 「はやくしないと、結婚式に遅れるぞ。」 (29歳のクリスマス, p.94)

(21)一秒だって早い方がいい。来月出産だ。くずくずしていると流産しちゃうぞ。

(中1年, p.86)

(22)ここまでいくと、入江も自分も駄目になってしまう。LIBRARY (君といた夏, p.182)

(23) 「ウジウジ心配していると、体にわるいしさ」 寢室から、典子が言った。

(29歳のクリスマス, p.37)

(24)あのさ、その辺でうろつかれると、迷惑なんだけど。

(ビューティフルライフ, p.163)

(25)このヨットを上から見ると、ロケットのように見える。 (小5年上, p.42)

(26)松沢小学校の前を通りすぎてしばらく行くと、三階立てのマンションがある。

(29歳のクリスマス, p.72)

(20~26)은 모두 전건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후건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는 가정을 나타내는 문장들이다. (20)의 경우 아직은 잘 모르지만 만약 빨리 서두르지 않게 되면 결혼식에 늦는다고

하는 만약의 경우를 서술하고 있고 (23)은 걱정만 하고 있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25)에서도 요트를 위에서 본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로켓처럼 보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듯 가정용법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태에 대해서 전건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후건에서 말하는 것이다. 즉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전건의 사태가 일어나면 후건의 사태가 성립된다는 것을 서술하는 용법이다.

「と」에 의해 가정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은 위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태를 나타낸다. 즉, 만약 전건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자연스럽게 혹은 당연히 후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가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표현의 구문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 (27) a. お金があると、買う。
b. *お金があると、買おう。(의지)
c. *お金があると、買いなさい。(명령)
d. *お金があると、買ってください。(의뢰)
e. *お金があると、買しましょう。(권유)

(27a)는 가정표현의 문이다. (27b~27e)처럼 「と」에 의한 가정용법에서는 후건에 「의지, 명령, 의뢰, 권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오면 비문이 된다. 「と」의 가정조건은 전건과 후건 사이에 다소의 자연적,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객관적 사실이 서술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と」에 의한 가정용법

에서는 명령이나 의뢰, 권유 등 상대에게 영향을 주는 표현이나 의지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⁸⁾ 이러한 이유로 「と」의 가정표현은 다른 가정표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と」의 가정표현 가운데는 이러한 일반적인 가정용법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28)AP通信によると、ハリケーン「リタ」の上陸地点に近いテキサス州南東部のボーモンドで26日、一家5人が中毒で死亡しているのが見つかった。

(朝日新聞, 2004.11.01)

(29)文体といっても、翻訳の文体で、もっと詳しくいうと、岩波文庫「赤毛布外遊記」の文体である。

(朝日新聞, 2005.09.27)

(30)親の立場からすると、田舎暮らしで生じる様々な仕事や、車の運転がしづらくなっても、子供一家がいるから安心だ。

(朝日新聞, 2005.09.29)

(31)「何と言われようと、日本一の夏を過ごした君たちの頑張りには誰も消すことはできない」との温かな言葉があふれている。

(朝日新聞, 2005.08.29)

(32)行こうと行くまいと、あなたの自由だ。

(日本語文型辞典, p.613)

(33)煮て食おうと焼いて食おうと、ご自由に。

(日本語文型辞典, p.613)

(28~30)은 전건이 후건에서 서술하는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즉, 후건 내용의 근거나 출처 등을 나타내고 있고 (31~33)에서는 후건이 성립하는데 전건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と」로 가정용법을 나타내는 문장에는 (28~30)과 같이 전건에서 후건에 계속될 사태가 어떤 입장이나 관점에서

8) 竹内則晶(2001), 「条件表現の「と」について」, 仁荷大大学院 p.9

서술되고 있는가를 미리 나타내는 용법과 (31~33)과 같은 형태로 가정을 나타내는 용법도 있다. 그리고 (28~33)과 같은 표현들은 대부분 관용적인 형태로 사용된다.

3.4 계기(契機)표현

(34)ほかに痛いところはないかと聞くと、どこにも痛いところはないと言った。

(高1年, p.58)

(35)思いきって部屋のチャイムを押すと、「はい」と声かして、容子が出てきた。

(君といた夏, p.189)

(36)近づいて泣くと、千春ちゃんは私を腕に抱き上げた。

(つめたいよるに, p.159)

(37)わたしたちが近づくと、さっと身をおどらせてにげていきました。

(小5年, p.18)

(34)는 다른데 아픈 곳은 없는지를 묻는 행동이 이유, 계기가 되어 아픈 곳은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고 (35)의 경우도 방의 벨을 누르는 행위에 의해 ‘예’라는 대답이 나오고 있다. (36)도 다가가서 우는 행동에 의해 팔로 안았다는 행위가 일어났으며, (37)에서도 내가 가까이 갔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34~37) 모두 전건의 동작이 이유가 되어 후건의 동작이 그 결과로써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기표현은 전건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이 이유, 계기가 되어 후건에 오는 동작이나 상황변화에 영향을 주는

표현을 말한다.

위의 문장들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두 개의 사태가 아니다. (34)의 경우 방의 벨을 눌렀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容子が 나왔다는 의미로 전건과 후건이 서로 이유-결과의 관계를 가지는 조건의 의미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 (35~37)도 (3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므로 위 문장들은 조건관계를 나타내는 용법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계기표현의 구문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38)ひとことひとことゆっくり言うと、憬子は小さくなずいた。

(君といた夏, p.78)

(39)時夫が礼儀ただしくおじぎをすると、おばあさんもおじぎをした。

(つめたいよるに, p.74)

(40)さやをおすと、プツンと小さい音がしてわれた。 (豊田豊子 1982: 5)

(41)列車が動き出すと、熊さんと彼の娘はやたらに手を振つた。

(豊田豊子 1982: 8)

(38~41) 모두 전건이 이유, 계기가 되어 후건이 발생하게 되는 계기용법이다. (38)은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말한 것이 원인이 되어 憬子が 꼬덕이는 행동이 나타났고 (39)는 時夫가 인사를 하는 행동에 의해 おばあさんが 인사를 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38, 39) 두 문장 모두 전건의 영향으로 후건에서 어떠한 행동이 나타났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40)은 콩깍질을 눌렀다고 하는 전건의 동작의 영향으로 작은 소리

를 내면서 깨지는 반응을 일으킨 것이고 (41)은 전건의 주어인 열차는 후건에 어떠한 영향도 주고 있지 않지만, 후건에서는 전건에 의해 손을 흔든다고 하는 동작을 일으키고 있다.

정리해보면 (38, 39)는 전건 주어의 영향을 받아 후건의 주어가 동작을 일으키는 경우이고 (40)은 전건의 주어의 영향을 받아 후건의 주어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이며 (41)은 전건 주어의 영향이 없이 후건의 주어가 동작을 일으키는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⁹⁾

우선 (38, 39)의 경우처럼 전건 주어의 영향을 받아 후건의 주어가 동작을 일으키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 경우는 계기표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로 「~すると、~した」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용법에서는 전건과 후건이 모두 의지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이라야 한다. 즉 (38)에서 한마디씩 천천히 말한것과 憬子が 끄덕인 것이 둘 다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동작들인 것이다. (39)에서도 時夫가 인사를 한 것과 おばあさんが 인사를 한 것 둘 다 의지적인 행동들이다.

(40)은 전건의 주어의 영향을 받아 후건의 주어가 반응의 작용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40)에서 볼 수 있듯이 전건의 영향을 받아 후건에서 일어나는 사태는 의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건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사태를 나타내는 경우이므로 「~すると、~なった」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41)을 보면 열차가 출발하는 것은 후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후건에서는 열차가 출발하는 것에 의해 손을

9) 豊田豊子(1982), 「接續助詞「と」の用法と機能(IV)」 『日本語學校論集』 9号 p.3

흔드는 행위가 발생한 것이므로 전건과 후건이 이유-결과라는 관계에 있다. 즉 전건 주어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후건의 주어가 동작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건에서는 후건에 영향을 주고자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후건에서는 전건의 영향을 받아 어떤 동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도 계기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なると、~した」의 의미가 되며 이것을 내적인 계기(內的なきっかけ)라고 하기도 한다.¹⁰⁾

다음으로 (38~41)의 전건과 후건의 주어를 살펴보면 (38)에서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이야기한 주체는 나와있지 않은 누군가이고 그로 인해 끄덕인 것은 「憬子」로 전건과 후건의 주어가 서로 다르다. (39)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건과 후건의 주어가 각각 「時夫」와 「おばあさん」으로 다르며 (40, 41)도 전건과 후건의 주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다.

(42)大けがをした中納言は、自分が握っているものが貝ではなく、燕のふんだとわかると、さらにながかり。
(中1年, p.166)

(43)入江はそれを聞くと、いてもたってもいられなくなる。(君といた夏, p.254)

(42)의 경우 전건과 후건의 주어가 둘 다 「中納言」이고 (43)에서도 전건과 후건 모두 주어가 「入江」이다. 그리고 (42, 43)은 둘 다 계기표현이다. 이렇듯 (42, 43)과 같이 전건과 후건의 주어가 같은 경우에도 전건과 후건이 각각 이유-결과의 관계를 가지는 계기용법이 될 수 있다. (42, 43)과 같이 전건과 후건의 주어가 같으면서 전

10) 豊田豊子(1982), p.3

건이 후건에서 일어나는 사태의 이유, 원인이 되는 계기용법을 나타내는 경우 후건에는 스스로가 조절할 수 없는 상황 즉, 무의지적인 사태를 나타내게 된다. 즉, (42)의 경우에는 中納言이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제비똥이라는 것을 알고 실망했다는 것으로 후건의 실망했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사태인 것이다. (43)에서도 마찬가지로 入江이 무엇인가를 듣고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은 스스로가 조절할 수 없는 사태이므로 무의지적인 사태라고 할 수 있다.



IV. 시간관계 「と」

(44)父が「三」というかけ声をかけると同時に、少年は勇気を出して、どんぶと海にとびこんだ。
(小4年上, p.43)

(45)柗二は杏子を抱き上げてトイレの前の廊下に降ろすと、ドアを閉めた。
(ビューティフルライフ, p.97)

(46)ゆるい板道をのぼると、もう桜並木がはじまっている。(つめたいよるに, p.90)

(47)正夫と久仁子が店の裏で話をしていると、電話が鳴った。
(ビューティフルライフ, p.230)

(44)는 전건과 후건이 동시에 일어난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45)는 전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어서 후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46)은 전건에서의 행위에 의해 후건 상태를 발견한 것이고 (47)은 전건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후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44~47)은 모두 시간적으로 전건과 후건이 연결되어 있는 시간관계를 가지는 표현들이다.

「と」에 의해 전건과 후건이 연결되어 시간관계를 나타내게 되는 문장에서는 ‘조건관계 「と」’에서 살펴본 표현들과 같이 전건과 후건이 어떠한 조건관계를 가지는 문장이 아니라 시간의 전후관계나 시간적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전건과 후건이 조건관계에 의해 연결된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또는 어떠한 상황에 후건의 사태가 일어났는가 하는 시간관계를 가지는 표현들이다.

4.1 동시(同時)

(48)父が「三」というかけ声をかけると同時に、少年は勇気を出して、ざんぷと海にとびこんだ。(小4年上, p.43)

(49)企画部に飛込むと同時に、同僚の田島照子がそばに寄ってきた。(29歳のクリスマス, p.16)

(48)에서는 아버지가 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소년이 용기를 내어 바다에 뛰어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49)에서는 기획부에 들어감과 동시에 동료가 다가왔다고 하는 것이다. (48, 49)는 전건과 후건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동시용법은 전건과 후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두 사건 사이에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용법을 말한다. 즉, 전건과 후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48, 49)에서도 볼 수 있듯이 두 문장 모두 「同時に」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누가 봐도 동시를 나타내는 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용법의 구문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8, 49) 두 문장의 전건과 후건 주어를 살펴보면 (48)의 전건의 주어는 「父」, 후건의 주어는 「少年」이고 (49)에서는 각각 「私」와 「同僚の田島照子」이다. (48, 49)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시용법에서는 전건과 후건의 주어가 다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다.

(50)伝えるべき用件が簡潔に述べられていると同時に、家のこと、家族のことを心

配する書き手の情愛までが伝わってくる。

(中1年, p.230)

(50)은 전건 「전달한 내용을 간결하게 서술하는 행동」과 후건 「집과 가족에 대해 걱정하는 글쓴이의 마음이 전해져온다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즉 동시용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50)은 (48, 49)와 같은 동시용법이기는 하지만 (48, 49)가 전건과 후건이 서로 다른 주어인데 반해 (50)은 전건과 후건의 주어가 동일하다. (50)에서 보면 동시용법을 나타내는 문장 중 전건과 후건의 주어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건과 후건의 동작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즉 전건과 후건 중 한쪽이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한쪽은 그에 따라 느껴지는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50)의 「전할 용건을 간결하게 서술한다」라는 전건은 구체적인 행동이고 「집과 가족을 걱정하는 글쓴이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하는 후건은 느낌을 나타내는 감정상태로 전건과 후건이 서로 다른 동작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동시용법을 가지는 문장에서 전건과 후건의 주어가 같은 경우는 (50)처럼 전건과 후건의 동작이 ‘구체적 동작과 감정상태’이거나 ‘감정상태와 구체적 동작’이어야 한다. 즉, 전건과 후건은 서로 다른 동작이어야 한다.

4.2 연속(連続)

(51) 終二は杏子を抱き上げてトイレの前の廊下に降ろすと、ドアを閉めた。

(ビューティフルライフ, p.97)

(52)男の人はそれをビニル袋に入れると、学校の玄関まで歩いていった。

(中2年, p.116)

(53)朝美は杉失に洗濯物を投げつけると、家を飛び出した。(君といた夏, p.27)

(54)そして、おもくろにふろしき包みをほどくと、中からあじの干物をとった。

(つめたいよるに, p.52)

(55)柗二は素直に反省してひとこと誤ると、本を受け取って出口に向かった。

(ビューティフルライフ, p.55)

(56)深呼吸して一息つくと、ボタンを押した。

(君といた夏, p.23)

(51)은 柗二가 杏子を 안아서 복도에 내려주는 행위에 이어 문을 닫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고 (52)에서도 남자가 무언가를 비닐에 넣는 행위에 이어 학교의 현관까지 걸어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53)에서도 朝美가 세탁물을 던지고 나서 집밖으로 뛰어나갔다고 하는 전건과 후건의 두 가지 행동이 연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51~56)의 문장에서는 같은 주어에 의해 한 동작을 하고 난 뒤 다음 동작을 하는 연속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연속용법이라는 것은 전건과 후건이 전후로 연속해서 성립하는 경우로 전건의 동작이나 사태에 연속해서 후건이 나타나는 용법이다. 이러한 동일 행위자가 하나의 동작을 계기로 해서 계속 이어오는 다음의 동작을 행하는 용법 즉, 연속용법은 「たら、なら、ば」형식에는 없는 「と」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용법이기도 하다.

(51~56)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속용법은 전건과 후건의 두 가지 행동이 행해지는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 등이 개입할 수 없다.

다음으로 연속용법의 구문상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57) 「そう、じゃ、電気消すわよ」看護婦は部屋の灯りを消すと、出て行った。

(ビューティフルライフ, p.305)

(58)彼は家へ帰って衣服を着替えると、すぐ自分の書斎へはいった。

(道草, p.11)

(59)文四郎はためらわずにその指を口に含むと、傷口を強く吸った。

(中2年, p.102)

(57~59)에서의 전건과 후건의 주체를 살펴보면 (57)에서는 看護婦가 불을 끄고 나갔고 (58)에서는 彼가 옷을 갈아입고 나서 서재에 들어갔고 (59)에서는 文四郎가 손가락을 입에 넣고 상처를 빨았다고 하는 내용이다. (57~59) 모두 전건과 후건이 동일주체에 의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일어난 행위들이 모두 주체의 의지에 의해 일어나는 행위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연속해서 일어나는 행동들이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 즉, 연속용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모두 동일주체에 의해 의지적으로 동일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누군가가 관찰하여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속용법에서는 화자의 판단이나 사고가 개입할 수 없다.

4.3 발견(発見)

(60)講座の最初の日の朝、美術教室に入ると、十五人ほどの生徒が来ていた。

(中2年, p.121)

(61)文四郎が川べりに出ると、隣家の娘ふくがものを洗っていた。(中3年, p.98)

(62)無事、日本に帰_り着いた。帰_ってみると、日本じゅうが大さわぎになっていた。

(小5年上, p.130)

(63)十月のある夜、おふくろによばれてふろ場に行く_と、草之が入っていた。

(つめたいよるに, p.56)

(64)やりきれない気持で帰_ってくると、マンションの外に赤い車が停っていた。

(ビューティフルライフ, p.261)

(60)은 강좌를 하는 첫날 미술교실에 들어가니 15명 정도의 학생이 와 있었다는 문장으로, 미술교실에 들어가는 동작에 의해 교실 안에 15명 정도의 학생이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즉 후건사태의 발견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61)에서도 文四郎가 강가에서 나오는 행위에 의해 옆집 딸이 무언가를 씻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62~64)에서도 전건과 후건의 관계가 (60, 61)와 같은 경우이다. 이렇듯 전건의 행위에 의해 후건에서의 어떤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발견용법이라고 한다.

즉, 발견용법은 전건의 동작에 의해 후건의 상태를 인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건에는 발견의 계기가 되는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고, 후건에는 전건에 의해 발견되는 상태나 행위가 나타난다.

이러한 발견용법은 전건이 어떠한 계기가 되어 후건의 상태나 상황이 발견되는 것을 나타내는 용법이므로 전건이 후건에 어떠한 영향이나 작용도 미치지 않는다. (60)에서 살펴보면 강좌의 첫날 미술교실로 들어간 행위가 후건의 15명 정도의 학생이 와 있는 상태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다만 미술교실로 들어간 행위가 계기가

되어 후건에 나온 15명 정도의 학생이 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뿐이다. (61)에서도 전건인 文四郎가 강가에서 나간 행위가 후건의 옆집 딸이 무언가를 씻고 있는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2)에서도 일본에 돌아간 행위와, 후건인 일본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63, 64)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발견용법에서의 전건은 단지 후건에 나타나는 어떤 사태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행위나 상태이고 후건은 전건의 행위에 의해 발견되는 어떤 존재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단순히 「～と、～のを発見した」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발견용법에서의 전건과 후건은 서로 조건관계가 아닌 우연적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발견용법의 구문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5)ぼくの真上をはたはたと通るものがある。ふりあおぐと、まっ黒なからすだ。

(小5年下, p.22)

(66)庭をつきつて豚舎に入ると、無数の豚がひしめきあって眠っていた。

(つめたいよるに, p.94)

(67)ぞっとするほど低い声がして、ふりかえってみると、そこには洋子よりもはるかに大きな健二が立っていた。

(つめたいよるに, p.27)

(68)ドアのハンドルを回してみると、入り口は開い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中1年, p.251)

(69)外でタクミの声かしたので見ると、杏子の姿が見えた。

(ビューティフルライフ, p.84)

(65)에서 전건의 주어는 「ぼく」, 후건의 주어는 「からす」 이고

(66)에서도 전건과 후건의 주어가 각각 「私」와 「豚」이다. 그리고 (67~69) 모두 전건과 후건의 주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발견용법에서 전건과 후건은 각각 발견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의해 발견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각각의 주어는 서로 달라야 한다.

다음으로 (65~69)의 전건의 동사들을 살펴보면 (65, 66)은 각각 「ふりあおぐと」、「入ると」이고 (67, 68)은 「ふりかえてみると」、「回してみと」이고 (69)는 「見ると」이다. 발견용법의 전건에 오는 동사는 첫째, (65, 66)과 같이 직접은 발견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동사와 둘째, (67, 68)의 「~てみると」와 같이 보조동사를 가지는 것, 그리고 셋째, (69)의 「見ると」와 같이 직접 발견을 암시하는 동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듯 발견용법에서 전건에 나오는 동사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¹¹⁾

둘째와 셋째의 경우는 「みる」라는 동사가 사용됨으로써 어느 정도 발견의 상황임을 알 수 있지만, 첫번째의 경우는 직접은 발견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지만 후건에서 어떠한 발견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이 오는 것에 의해 발견용법을 나타내는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65~69)의 후건을 살펴보면, (65~67)은 후건이 각각 「~だ」、「~ていた」로 단순히 어떤 사태나 존재를 발견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68, 69)에서는 후건의 형태가 각각 「~が分かった」、「~が見えた」로 단순한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 어떠한 사태를 발견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¹²⁾

11) 豊田豊子(1979), 「発見の「と」」 『日本語教育』 36 p.95

즉, (65)에서 살펴보면 올려다보는 행위에 의해 발견된 것이 까마귀라는 것을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68)의 경우는 문의 핸들을 돌려보는 행위에 의해 입구가 열려있다는 것을 스스로 안 것이고, 그로 인해 이러한 사태를 발견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발견용법에 해당하는 문장의 후건의 형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다.

4.4 발현(発現)

(70)ため息をつきながら掲示板を眺めていると、背後から声をかけられた。

(君といた夏, p.264)

(71)かじかの鳴いている谷川のほとりを歩いていると、とつぜん、その中の一ぴきがほかのかじかのどの声よりも、だんちがいに美しい声で歌を歌いました。

(小5年上, p.63)

(72)私が部屋でレポートを書いていると、ノックの音がして陽子ちゃんが入ってきた。

(TUGUMI, p.176)

(73)校門の前で憬子が出てくるのを待っていると、憬子が理工学部の棟から歩いてきた。

(君といた夏, p.40)

(74)指定された喫茶店で正夫が待っていると、柊二が走ってやってきた。

(ビューティフルライフ, p.213)

(70)은 게시판을 쳐다보고 있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71)은 강가를 걷고 있는

12) 豊田豊子(1979), p.98

행위를 하고 있을 때 かが가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72)는 레포트를 쓰고 있을 때 노크소리가 나고 陽子が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73)은 憬子を 기다리고 있을 때 憬子が 걸어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74)도 正夫를 기다리고 있을 때 柊二가 뛰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70~74) 모두 전건에서 어떠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을 때 후건의 사태나 동작이 나타나고 있다. 즉, (70~74) 모두 전건의 동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에 후건의 사태나 동작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발현’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는 의미로 발현용법이란 어떤 동작을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후건이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는 용법이다.

이러한 발현용법은 (70~74)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건은 어떠한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고 후건은 그때 행해졌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낸다. 즉 (70)에서 계시판을 바라보고 있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온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계시판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계시판을 바라보고 있는 행위와 누군가가 말을 걸어온 행위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다. (71~74)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발현용법은 전건이 일어남으로써 후건이 일어나는 전건과 후건이 조건관계를 가지는 용법이 아닌 「~する時に」와 같이 어떠한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는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발현용법의 구문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75)時夫が半信半疑のまま立っていると、突然、おばあさんがかん高くさげんだ。

(つめたいよるに, p.69)

(76)四人でお茶していると、彩が馬鹿みたいな質問をする。

(29歳のクリスマス, p.130)

(77)入江と並んで話していると、心がじわっとあたたかくなる。

(君といた夏, p.39)

(78)長堀の事務所を出て、川沿いに歩いていると、ふっと涙が出てきた。

(29歳のクリスマス, p.146)

(75~78)은 모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발현용법을 나타내는 문장들이다. 위 문장 모두 전건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후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장들의 전건과 후건의 주어를 살펴보면 (75)에서는 전건의 주어는 「時夫」, 후건은 「おばあさん」으로 서로 상이하고, (78)의 경우도 전건과 후건의 주어가 각각 「四人」과 「彩」로 다르다. 그에 반해 (77)은 전건과 후건 모두 「入江과 이야기하고 있는 누군가」이고 (78)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전건과 후건의 주어가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76, 77)은 전건과 후건의 주어가 다른 경우이고 (77, 78)은 전건과 후건의 주어가 동일한 경우이다. 발현용법에서는 이와 같이 주어가 동일한가 상이한가에 따라 후건의 형태가 달라진다. (75, 76)에서와 같이 전건과 후건의 주어가 다른 경우의 후건을 살펴보면, (75)는 크게 소리쳤다는 것 (76)에서는 바보 같은 질문을 했다 라는 내용으로, 두 가지 모두 주어의 의지에 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77, 78)의 경우에는 (77)에서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78)에서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77, 78)에서의 후건은 주어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사태를 나타내고 있다. 즉 (75, 76)과 같이

전건과 후건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는 후건에 의지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77, 78)과 같이 주어가 동일한 경우의 후건은 의지적이지 않은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음으로 (75~78)의 전건의 형태를 살펴보면 (75)는 「立っている」と (76)은 「お茶していると」 (77)은 「話していると」 (78)은 「歩いている」と이다. 즉 (75~78) 모두 「~ている」의 형태로 어떠한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발현을 나타내는 문장이 모두 이러한 형태의 전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79)九月になると、空気がにわか澄み、山の風は涼しくなりました。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キッチン, p.47)

(80)夕方になると、透くんも来てくれた。 (つめたいよるに, p.110)

(81)夕立が来ると、一斉に雨に体を洗ってもらいました。 (中2年, p.239)

(82)夕暮れになると、ほのぼのとした芳香をただよわせた。 (中1年, p.57)

(79~82)는 「~ている」의 형태는 아니지만 전건의 술어가 후건이 일어나는 때를 나타내는 「なる」라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즉 (79)에서는 「九月」라는 단어가 (80)에서는 「夕方」가 (81)은 「夕立」가 (82)에서는 「夕暮れ」라는 단어가 각각의 후건이 일어난 때를 직접 나타내고 있다.

(75~82)의 경우 모두 후건이 성립하는데 전건의 영향은 전혀 없이 전건은 후건이 성립한 때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발현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현용법을 나타내는 문장에서의 전건

은 (75~78)과 같이 「~ている」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와 (79~82)처럼 단순히 때를 나타내는 なる가 붙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³⁾



13) 豊田豊子(1979), 「接續助詞「と」の用法と機能(Ⅲ)」 『日本語學校論集』6号, p.95

V. 결 론

일본어의 접속조사「と」에 대해 각 용법별 의미상, 구문상의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접속조사「と」는 조건관계와 시간관계의 두 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접속조사「と」를 조건관계「と」와 시간관계「と」로 나누어 의미상, 구문상의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건관계「と」는 「と」로 연결된 문장에 있어 전건과 후건이 서로 조건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조건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と」로 연결된 문장에서 전건과 후건이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조건관계를 가지는 「と」는 일반조건, 습관·반복표현, 가정표현, 계기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일반조건은 어떠한 일반적인 사실을 서술하는 경우로, 문말에는 기본형이 온다.

②습관·반복표현은 개인의 습관이나 반복된 행위를 나타내는 용법이다. 문말의 형태가 과거형인 경우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습관·반복을 나타내며, 현재형인 경우에는 현재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태임을 나타낸다.

③가정표현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태에 대한 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용법은 ‘조건’을 나타내는 다른 용법 「たら、なら、ば」에 비해 가정성이나 조건성의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④계기표현은 전건이 이유가 되어 그 결과로서 후건의 행위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용법이다. 즉 전건은 후건발생의 원인, 이유가 되고 후건은 전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과를 나타낸다.

2)시간관계 「と」는 전건과 후건이 조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전후관계나 시간적 상황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시간관계 「と」는 동시용법, 연속용법, 발견용법, 발현용법으로 나누어 보았다.

①동시용법은 전건과 후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두 사건 사이에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용법이다. 즉 전건과 후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②연속용법은 전건과 후건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속으로 일어나는 용법을 말한다. 연속용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모두 동일주체에 의해 의지적으로 동일장소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나타낸다.

③발견용법은 전건에 나타난 행동이나 사태에 의해 후건의 상태가 인지되는 것을 나타내는 용법이다. 즉 전건에는 발견의 계기가 되는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고 후건에는 전건에 의해 발견되는 상태나 행위가 온다.

④발현용법은 전건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후건의 상태나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전건은 어떠한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고 후건은 그때 행해졌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낸다.

위에서 살펴본 시간관계 「と」의 용법가운데 연속용법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표현 「と、たら、なら、ば」중 「と」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용법이다.



参 考 文 献

<예문출전>

小学校教科書(1970), 国語(1年上~6年下), 光村図書
中学校教科書(1986), 国語(1年~3年), 光村図書
高校教科書(1981), 国語(1年~3年), 明治書院
夏目漱石(1942), 道草, 岩波書店
吉本ばなな(1992), TUGUMI, 中央公論新社
江国香織(1996), つめたいよるに, 新潮社
鎌田敏夫(1998), 29歳のクリスマス, 新潮社
吉本ばなな(2001), キッチン, 角川書店
北川悦吏子(2001), 君といた夏, 角川書店
北川悦吏子(2002), ビューティフルライフ, 角川書店
朝日新聞



<사전류>

日本語教育学会 編(1982), 『日本語教育辞典』, 大修館書店
グループ・ジャマシイ(1998), 『日本語文型辞典』, くろしお出版

<단행본>

佐久間鼎(1940), 『現代日本語法の研究』, 厚生社
益岡隆志(1993), 『日本語の条件表現』, くろしお出版
宮島達夫・仁田義雄(1995), 『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下) 複文、連文編』, くろしお出版
蓮沼昭子 外2人(2001), 『日本語文法セルフマスターシリーズ 7 条件表現』, くろしお出版
山田敏弘 外3人(2002), 『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田中寛(2004), 『日本語複文表現の研究-接続と叙述の構造-』, 白帝社

<논문>

- 北条涼子(1964), 「条件の表し方」 『日本語教育』 (4), 日本語教育学会
- 豊田豊子(1977), 「「と」と「~とき(時)」」 『日本語教育』 (33), 日本語教育学会
- 豊田豊子(1978), 「接続助詞「と」の用法と機能(I)」 『日本語学校論集』 (5),
東京外国語大学外国語学部附属日本語学校
- 豊田豊子(1979), 「接続助詞「と」の用法と機能(III)」 『日本語学校論集』 (6),
東京外国語大学外国語学部附属日本語学校
- 豊田豊子(1979), 「発見の「と」」 『日本語教育』 (36), 日本語教育学会
- 豊田豊子(1982), 「接続助詞「と」の用法と機能(IV)」 『日本語学校論集』 (9),
東京外国語大学外国語学部附属日本語学校
- 豊田豊子(1983), 「接続助詞「と」の用法と機能(V)」 『日本語学校論集』 (10),
東京外国語大学外国語学部附属日本語学校
- 岡崎正継(1980), 「順態接続助詞「と」の成立について」 『国学院雑誌』 (81), 国
学院大学
- 川口さち子(1984), 「ト・バ・タラ・ナラによる条件表現の分析-日本語初級教科書
における提出順序再考-」 『早稲田大学語学教育研究所紀要』 (28),
早稲田大学語学教育研究所
- 大島弘子(1984), 「「たら」、「ば」、「と」、「なら(ば)」構文」 『済州大
論文集』 (17), 済州大
- 鈴木義和(1994), 「条件表現各論 -バ/ト/タラ/ナラ-」 『日本語学』 (13), 明
治書院
- 加藤理恵(1998), 「「時」を表す「たら」と「と」について」, 『日本語教育』 (97),
日本語教育学会
- 山下明昭(1999), 「「~と」に関する一考察」 『日本文化学報』 (7), 韓国日本文
化学会
- 藤城浩子(2000), 「ト、バ、タラ-基本的な意味からの用法検証」 『三重大学留学セ
ンター』 (2), 三重大学留学生センター
- 竹内則晶(2001), 「条件表現の「と」について」, 仁荷大大学院
- 金沢欲之(2003), 「日本語教育における「と」接続文の位置付けについて」 『日本
学報』 (54), 韓国日本学会

- 李正愛(1989), 「條件表現「と、ば、たら、なら」에 관한 小考」 『牛岩論叢』 (5), 청주대학교대학원
- 尹相奘(1991), 「現代日本語の條件表現 -ト・ナラ・タラ・バを中心として-」, 明知大學校
- 金惠英(1992), 「現代日本語の條件表現; 「と・ば・たら」의 異同を中心に」 『외국문화연구』 (15), 조선대학교외국문화연구소
- 崔炳奎(1992), 「日本語의 時間從屬文의 研究- 「と」「て」「とき」文을 中心으로-」 『日語教育』 (8), 한국일본어교육학회
- 이희두(1994), 「日本語條件表現에 관한 考察; 「ば」「と」「たら」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 金慶愛(1994), 「條件表現に現れる接續助詞(と)構文の一考察; 構文を特徴づける制約要素を中心に」, 市立仁川專門大學
- 宋義翼(1996), 「條件表現[ば、と、たら、なら]에 對한 考察」, 慶北女子外國語專門大學
- 朴基明(1997), 「日本語教育에 있어서의 條件表現形式에 대한 用法考察 - 「と」「ば」「たら」「なら」의 導入法을 中心으로-」, 建國大學學校教育大學院
- 한규안(2000), 「日本語條件表現「ば」「と」「たら」「なら」에 관한 考察」 『외국어연구』 (13), 성심외국어대학외국어교육연구소
- 嚴洪卿(2001), 「「と」의 조건성」 『漢陽日本學』 (9), 漢陽日本學會

<Abstract>

A Study on Conjunctive Particle 「と」

Hyun Youn-Jung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Kim Seung-han

The representative similar words of Japanese conjunctions are conditional expressions 「と(to), たら(tara), なら(nara), ば(ba)」. Among these, 「と(to)」 has characteristics slightly different from the others. In sentences combined with a preceding clause and a following clause of 「と(to)」, 「と(to)」 is used to express the course of time or circumstances as well as conditional meanings. Accordingly, this thesis studies such conjunctive particle 「と(to)」.

This thesis analyzes the 「と(to)」 sentence in terms of the usage, such as 「と(to)」 as a conditional and as a time-relation expression and studies the semantic and sentence structural characteristics each usage has. The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the study.

1) 「と(to)」 as a conditional implies there is cause and effect relation between preceding clause and following clause of 「と(to)」. This usage is categorized into general conditionals, habitual expressions, subjunctive expressions and motive expressions.

①General conditional is used to describe general facts. A plain form is put to the end of a sentenc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06.

②Habitual expression is used to represent personal habits or repeated actions. If the past form is placed at the end of a sentence, it indicates the habits and the repetition of actions already done in the past. If the present form is used, it implies something is still being carried out in the present.

③Subjunctive expression is used to mean the supposition of unrealized situation. This usage is weak in conditionality as compared with the other conditional expressions 「たら(tara), なら(nara), ば(ba)」.

④Motive expression is used when the action or situation of a following clause is caused by the conditions of a preceding clause as a result.

2)Time-relation 「と(to)」 is used to express sequential relations in time or circumstances related with time. It is categorized in terms of the usage such as simultaneous, consecutive, discovery and revelatory usage.

①Simultaneous usage is used when the two events happen at the same time while a preceding and a following clause continue.

②Consecutive usage implies the events of a preceding and a following clause successively happen in the course of time.

③Discovery usage means the action or situation of a following clause is recognized by a preceding clause.

④Revelatory usage means the action or situation of a following clause happens while the action of a preceding clause is forming.

Above-mentioned consecutive usage is a peculiar one only 「と(to)」 has among conditional conjunction expressions 「と(to), たら(tara), なら(nara), ば(ba)」.